



3면

“한·중 상호협력 심화, 새로운 30년 위해 중요”

# 전주매일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음 8월 24일) 제304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특별자치도·공공의대 설립 ‘공감대’

전북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김관영 지사, 경제부흥·농생명·새만금 등 예산 건의

이재명 대표·최고위원들, 현안 해결 등 전북 지원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전북을 찾아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등 그동안 소외됐던 전북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16일 전북도청(도지사 김관영)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본면기3면)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양승조 차장은 지방정부위원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관영 도지사는 현장 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북도 주요 현안과 국가예산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과 건전재정 기조로 어느 해보다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전북의 산업구조 개선과 경제 부

흥 등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예산 핵심사업 20건이 국회단계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북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살마리를 풀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전북은 수도권·영호남·호남 내 차별 등 3중 차별에 이어 정부의 조광역권 및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는 4중 차별 이외에도,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는 정도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당론채택과 함께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은 필수·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하루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또한, 대한민국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동

령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자선운동 금융기관의 전북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희망 기업의 수요 충족과 식품산업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의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하고, 새만금지역 투자 촉진과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채만금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으며,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구축 사업’에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전북에 대한 자신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당의 힘을 결집시키겠다”며, “전라북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도민 여러분의 염원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 공공의대 설립 역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을 넘어서 이보다 근본적인 지역균형 복지이자 지역 간 의료체계 격차 해소 측면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협의회 종합토론에서 전북도는 2023 국가예산 핵심사업이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농생명

수도 완성 등 전북 경제 부흥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설명하면서 국회 단계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다음 주 전북 국회의원과 조찬 간담회에서 예산정책협의의 사항에 대한 의원별 역할 분담과 국가예산 확보전략을 논의하는 등 국회 단계 대응 체제로 전환해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 내년 재해예방 국비 719억 확보

도, 올해보다 34억원 증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6개 분야 153개 지구 반영  
행안부 풍수해생활권 공모  
전주 조촌지구 등 3곳 선정

와 지방비를 포함해 1,489억원 규모다. 특히,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올해까지 6개 지구 공모 선정된 것에 이어 내년에도 전주 조촌지구와 남원 대곡지구, 고창 상하지구 등 3개 지구가 공모에 선정돼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비 594억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내년 재해예방사업 국비 7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은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의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을 정비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도는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6개 분야 153개 지구가 반영됐으며, 올해 확보한 국비 685억원 보다 34억원 증가된 금액이다.

분야별로 확보한 국비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9개 지구 136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33개 지구 335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9개 지구 74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1개 지구 110억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58개 지구 20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3개 지구 44억원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153개 지구를 정비하는데 총 사업비는 국비

전북도에서는 그동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사전 사업대상자 발굴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심사평가 내용 등을 지원했다.

이번 공모 선정된 3개 지구도 행정안전부 저류지, 배수펌프장, 환경부 지방하천정비, 환경부 하수도정비 등을 행정안전부 주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로 한번에 추진하게 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재해예방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 현안 해결 기회로”

김관영 도지사, 간부회의서 “국회 대응에 만전 기해달라”  
환경·농축산 식품분야 점검시 사전예고제 실행 주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국가예산 확보 등 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19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라며, “질문에정 의원과 협의해 질의서 제공을 통해 전북도의 현안 등을 해결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김 지사는 국가예산은 국회 단계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추가·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국장은, 현장행정 건의사항 처리결과, 토석채취사업장 도·시군 합동점검,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 사업 공모 대응, 지역혁신벤처펀드 결성 추진 등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김 지사는 실국별 현장행정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현장에

서 나온 건의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진행해 나갈 것”과 “실국에서는 도 지사가 꼭 가야 할 현장행정, 시도 및 시군과 관련된 일정이 있으면 미리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 도민 소통 및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민생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재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환경복지국장으로 부터 ‘토석채취사업장 도·시군 합동점검 계획’을 보고받고, “환경 분야 뿐만 아니라 농축산식품분야 사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및 허가준준 준수 확인시 불시에 점검하지 말고, 사업장에 미리 예고하여 경각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지사는 도의회 5분발언 및 긴급현안 질문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5분발언 등을 통해 도의회에서 도정에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시, 신속하고 제대로 실행계획을 세워,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설명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실국장에게 정부의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방안을 숙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최근 정부에서 예타제도의 역할 강화 및 신속성·유연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라며, “전북도에서 예타 진행 및 준비중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지사는 “법령 개정·적용시기 등 동향을 신속히 파악·논리 개발 및 대응책을 점검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발굴·추진에 차질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에서 지자체 설명회 및 추가 연구용역 추진시 지역균형발전 항목 가중치 방안 건의 등 전북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BUAN SUNSET ART FESTIVAL**

2022 부안노을아트페스티벌

2022. 10. 7. (금) ~ 10. 9.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일원

MAIN PROGRAM

부안노을 전국합창대회, 부안노을 sunset콘서트, 드론 라이트쇼, 모래조각, 나들이 요가 등

20BSAF 주최/주관 |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회